

월랜드 5.1이닝 무실점… 외인 투수 듀오 기대되네

1피안타 호투 선발 점검 순조…KIA, SK와 시범경기 2차전 3-3

‘마무리 후보’ 김세현, 9회초 1점차 리드 못지켜 ‘뒷문 고민’ 여전

KIA 타이거즈의 새 외국인 선수 조 월랜드가 기본 좋게 첫 아이를 만나러 간다.

KIA 월랜드가 13일 SK 와이번스와의 시범경기 2차전에 선발로 나와 5.1이닝 무실점 피칭을 소화했다. 90개의 투구수가 예정됐던 월랜드는 83개의 공으로 6회 첫 타자까지 소화한 뒤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이번 등판은 월랜드의 첫 시범경기 등판이자 마지막 등판이었다. 첫 아이 출산을 앞둔 그는 15일 미국으로 들어가 19일 귀국할 예정이다.

새 무대 적응과 시즌 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했던 만큼 월랜드에게는 점검할 게 많은 경기였다. 결과는 1피안타 2볼넷 5탈삼진 무실점. 결과는 좋았지만 월랜드는 아쉬웠던 점을 언급했다.

월랜드는 “전반적으로 좋았지만 볼넷을 허용한 게 아쉽다. 카운트 싸움에서 불리하게 들어간 게 아쉬웠다”고 경기 소감을 말했다.

월랜드는 1회 선두타자 노수광에게 내야안타를 허용한 뒤 고종욱을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이어진 정외윤과의 승부에서 첫 볼넷을 내줬다. 로맥을 상대로 4-6-3 병살타를 유도한 그는 2-3회는 삼자범퇴로 빠르게 넘겼다.

그리고 4회 다시 발 빠른 주자 고종욱을 볼넷으로 내보냈다.

월랜드는 한국에서의 첫 등판을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들어와봤다.

그는 2볼 2스트라이크, 2볼 3스트라이크까지 가는 승부가 많았다는 점을 아쉬움으로 꼽으면서 새 시즌 ‘공격적인 승부’를 예고했다.

SK의 발 빠른 상대 고종욱과의 승부도 월랜드에게 좋은 경험이 됐다.

월랜드는 고종욱과의 첫 승부에서 헛스윙 삼진을 잡아냈지만 두 번째 대결에서는 볼넷을 기록했다. 그리고 바로 도루도 허용했다. 고종욱은 이어 3루 도루까지 시도를 했다.

월랜드에게는 한국의 뛰는 야구를 생각해보는 승부였다.

월랜드는 “너무 일정하게 (투구) 패턴을 가져간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 타자들이 쉽게 진루를 했던 것 같다”며 “다음에는 패턴을 섞어가면서 타이밍을 덜 일정하게 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부족했던 부분을 언급한 월랜드지만 그의 2019 시즌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월랜드는 “마운드도 좋았고, 주변 환경도 마음에 들었다. 특히 마운드가 발을 내디딜 때도 편안하게 좋았다. 메이저리그 수준의 마운드였다”고 낮선 환경에서의 첫 등판에 대한 만족감을 보였다.

고향에 다녀오기 전 마지막 등판이라는 점에서도 만족스러운 점검 시간이었다. 최대 5이닝 정도를 생각했던 월랜드는 투구수에 여유가 생기면서 6회에도 등판을 자처한 한 타자를 더 상대했다.

한편 이날 KIA의 선발 점검은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뒷문 고민은 여전했다.

KIA는 3-2로 앞선 9회초 ‘마무리 후보’ 김세현을 투입하고도 1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했다.

첫 타자 고종욱을 볼넷으로 내보낸 김세현은 연속 도루를 허용하며 1사 3루에 몰렸다. 김세현에게 두 번째 볼넷을 내준 김세현은 허도환의 1루 땅볼로 동점 주자를 홈에 들여보냈다.

KIA는 9회말 공격에서 득점에 실패하면서 3-3 무승부를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9 프로야구 시범경기 KIA 타이거즈와 SK 와이번스의 경기에서 KIA 선발투수 월랜드가 투구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유튜브 중계 8분만에 1만명입니다”

덕아웃 T 특특

▲시즌 되면 빠져요 = ‘명예 회복’을 노리는 임기영은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 시즌 직구 구위가 떨어지면서 고전을 했던 그는 힘과 스피드를 키우기 위해 웨이트에 집중하면서 자연스럽게 몸무게도 불렀다. 3kg 정도 증량을 했던 임기영은 캠프 기간 1kg 정도 살이 빠졌다. 임기영은 “앞으로 더 빠질 것이다. 시즌 되면 빠지는 스타일이다”고 웃었다. 여러 시도를 하며 선발에 도전하는 임기영은 14일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시범경기 첫 등판을 소화할 예정이다.

▲시즌 되면 쎄요 = 시즌 되면 살이 빠지는 임기영과는 다른 고민을 하는 김선빈이다. 김선빈은 스프링캠프를 치르면서 7kg를 감량했다. 발목 수술을 했던 지난해 운동량 부족 등으로 살이 찘던 김선빈은 날렵한 몸을 만드는 데 공을 들였다. 겨우내 개인 운동을 부지런히 하고 저녁을 건너 뛰어 가면서 감량을 한 김선빈. 겉으로 보기에도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이다. 그라운드에서의 모습도 가법지만 김선빈은 “움직임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 시즌 들어가봐야 알 것 같다. 그런데 시즌 되면 살이 쪼다”고 웃었다.

▲타격왕도 연구를 하는데 = 김기태 감독을 웃게 하는 김선빈의 변화다. 김 감독은 “예전이었던 파울이 되는 볼인데 그라운드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었다”며 “손목을 쓰는 부분이 다르다. 타격

왕 출신인데 연구하더라. 후배들이 배워야 한다”고 미소 지었다. 김선빈은 “컨택에 집중해서 타격하고 있다. 볼을 눌러서 친다는 느낌을 가지고 싶었다. 손목을 잘 활용해야 하니까 그 부분을 신경 쓰고 있다”고 달라진 타격에 대해 설명했다.

▲주말 정도에는 시합처럼 = KIA는 13일 SK와의 시범경기 2차전에서 베스트 멤버를 가동하지 않았다. 주전 김선빈, 안치홍, 최형우가 스타팅 멤버에서 빠졌다. 전날 세 타석을 소화하면서 컨디션을 점검했던 이들은 9회초 동점을 허용하면서 9회말 공격이 이뤄지자 나란히 타석에 등장했다. 김기태 감독은 “다른 선수들도 뛰어봐야 한다. 주말 정도에는 (진짜) 시합처럼 경기할 예정이다”며 차분하게 실전 준비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8분 만에 1만 명입니다 =시범경기가 개막한 12일 챔피언스필드에는 1517명이 찾았다. 13일에는 1615명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온라인 관람자도 1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번 시범경기는 방송사 중계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KIA는 13일 경기부터 KT위즈(14-15일) 그리고 NC 다이노스(16-17일)의 홈 5경기를 구단 유튜브 공식 계정인 ‘KIA TV’를 통해 생중계하기로 했다. KIA는 13일 방송용 카메라 2개를 이용해 경기 장면을 내보냈고, 지역 캐스터에게 중계를 맡겼다. 방송 시작 8분 만에 동시 접속자가 1만 명을 넘어서는 등 관심은 뜨거웠다. 구단 사무실에는 유튜브 중계 관련 문의 전화가 쇄도하기도 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그 누나에 그 동생

이민우 유러피언 투어 ‘이달의 골퍼’…여자 골퍼 세계 3위 이민지와 남매

호주교포 골퍼 이민우(21)가 유러피언투어 2월 ‘이달의 골퍼’로 선정됐다.

유러피언투어는 이민우가 2월 ‘힐튼 이달의 골퍼’를 뽑는 팬 투표에서 44%를 얻어 라이언 폭스(뉴질랜드)를 제쳤다고 13일 전했다.

이번 시즌 프로로 전향해 유럽 무대에 데뷔한 이민우는 프로로 출전한 두 번째 대회인 지난달 사우디 인터내셔널에서 단독 4위를 차지했다.

이어 안방 호주에서 열린 ISPS 한다 웰드 슈퍼6 퍼스 대회에서는 공동 5위를 하면서 두 대회 연속

톱5 진입에 성공했다.

‘레이스 투 두바이 랭킹’에서도 단숨에 30위 부근으로 진입하면서 유러피언투어 신인상 수상을 위해 초반 좋은 출발을 했다.

호주 퍼스에서 나고 자란 교포 2세 이민우는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여자골프 세계랭킹 3위 이민지(23)의 친동생이기도 하다.

이민지와 이민우는 2012년과 2016년 US 주니어 아마추어 선수권대회를 나란히 제패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우즈 “마스터스까지 간다”

PGA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출전…“목 통증 사라져”

목 통증으로 지난주 대회에 불참했던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제5의 메이저 대회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을 앞두고는 “더는 아프지 않다”고 상대를 전했다.

AP·AFP·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우즈는 1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 비치의 TPC 소그래스(파72·7189야드)에서 9개 홀 연습 라운드를 마치고 “더는 목이 아프지 않다”고 말했다.

우즈는 지난주 플로리다주 베이힐에서 열린

PGA 투어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션얼에 목 통증을 이유로 불참했다.

그는 “나는 4차례 허리 수술을 받은 43세다. 내 상태를 관리해야 하고, 기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며, 최선의 노력과 관리를 해야 한다”며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우즈는 다음 주 열리는 발스파 챔피언십에는 불참하지만,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델 테크놀로지 매치 플레이에는 “통증이 재발하지 않는 한 출전할 것”이라고 출전 쪽에 무게를 실었다.

델 매치 플레이에 나올 경우 우즈는 마스터스 전까지 5개 대회를 치르게 된다. 우즈는 젊고 건강한 시절 마스터스 출전 전에 5~6개 대회에 출전하고는 했다. 앞서 우즈는 지난 1월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 공동 20위, 2월 제네시스 오픈 공동 15위에 올랐고, WGC 멕시코 챔피언십에서는 10위를 차지했다.

우즈는 “지금까지 3개 대회에 출전했다. 원래는 3~4개 대회에 나가려고 했다. 지난주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션얼에 나왔다면 4개 대회에 나왔을 것”이라며 “순위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모든 게 4월 마스터스를 향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우즈는 14일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디펜딩 챔피언 웨브 심프슨, 마스터스 타이틀 보유자인 패트릭 리드와 같은 조에서 경기한다.

/연합뉴스